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의 진단과 한인 치매가족 지원모임

최근 레이건 전 대통령이 앓게 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협회는 2050년까지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 받는 동양인이 705,04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 및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높은 서비스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 치매 협회에서 제공하는 가족수기 사례입니다.

~ 치매노인에게 봉사하며 살립니다 ~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57세 때 혈압으로 얼굴과 손에 약간 마비가 와서 한약과 침으로 회복이 되셨다. 건강한 편이셨던 어머니는 평소 책을 무척 좋아 하시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셨으며, 일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누워 계시기를 좋아하셨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63세 되시던 해, 며느리가 당신더러 나가 살라 했다 하시고 며느리가 당신을 때렸다 하시며 이웃사람과 친척들에게 흉을 보시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다.

일제 때 상도 많이 받고 박식하셨던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셨다. 그런 어머니가 이젠 가게에 가서 돈을 주지 않고 무조건 물건을 집어 오시니 가게 주인이 당황할 정도였다.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은 물론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장롱 안에 넣으셨다. 침을 집안 아무데나 마구 뺏으시고, 또 집을 나가 산다 하셨다. 옷을 찢기도 하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는 다른 사람 옷을 이것저것 걸쳐 입기도 하고, 이불을 다 버려 놓기도 하면서, 한 곳에 1분도 앉아 계시지를 못하고 선 채로 하루종일 왔다갔다하셨다. 때론 몸에 벌레가 붙었다며 떼어 달라 하시고, 밤에 각 방을 돌아다니시며 사람을 놀라게 하시고, 땅에 걸어 놓은 달력의 그림을 찢어 없애시는가 하면, 집에 불이 났다고 하시며 목욕탕에서 물을 퍼다 온 집안에 뿌려 놓으시기도 했다. 밖에 손님이 왔으며 문 열어 주라시고, 미국에 사는 딸 베고프다고 하니 빨리 밥 챙겨 주라시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낮 동안 내내 이빨을 갈으시며 하루 종일 며느리를 힘들고 귀찮게 하시던 어머니,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자주 왔다갔다 하시면서도 정작 불일을 볼 때는 옷을 내리지 않고 보시는 바람에 순간에 돌보지 못하면 실수를 하시던 어머니..... .

따로 없는 심정이었다. 식구들이 곤히 자는 틈을 타 집을 나가셔서 2, 3일 동안 못 찾아 애를 태운 적도 많았다. 당신 영감님 성함을 순간적으로 기억을 하여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나가면 옷은 엉망으로 거지할머니가 되어 있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어머니를 내 곁에 모시고 잠도 같이 자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거짓말로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그러실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무 필요도 없는 물건을 보자기에 싸가지고서는 집을 나가 살려고만 하셨다.

항시 불안 초조해 하시고 무서워하시던 어머니, 정말 힘든 생활의 반복이었다. 어느 때는 나를 기억하시기도 했다가 전혀 모르시기도 하고 엉뚱한 말씀만 하셨다. 고향을 찾으시고, 배고프다 밥을 드시고도 또 달라 조르시던 어머니.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 대소변, 목욕, 저지르시는 일 치우라 시아버지까지 신경 쓰려니 자식과 남편은 뒷전이었다. 사는 건지 마는 건지 마음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온 육신이 아팠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살았는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나는 몇 번을 깜박하고 쓰러졌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아프면 우리 어머니 누가 돌보랴 하는 걱정이 앞섰고 나 하나 희생하여 남편과 자식들에게 이 일로 슬픔을 주지 말자 생각하고 노력하느라 애썼지만, 모셔 보지 않은 사람들은 힘든 나에게 부모님 잘 모시라는 허망한 말만 할 뿐, 이 세상에서 나만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언니가 텔레비전에서 봤다며 노인복지관에서 치매노인 가족모임이 있다 하여 혹시 어머니를 위하는 일인가 싶어 가 보았다. 그 모임은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족이 주축이 되어 만든 가족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는 당신 부인을 혼자서 돌보시며 병을 고치기 위하여 미국도 다녀오셨고 열성을 다하셨고 말씀하시어 치매가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닌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치매 관련 정보와 간호법 등을 듣고 책자를 보고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

알츠하이머병을 정신질환으로 알고 가족 중 이 병의 증상을 보이는 이가 있는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집안에만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알츠하이머병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뇌의 신경계와 연관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의약품 부작용, 영양부족, 대뇌부상 등의 경우도 치매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치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협회 동남부펜실베이니아지부는 진단센터에서 진단 받는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 받더라도 의사처방으로 그 증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단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센터 목록은 알츠하이머협회 동남부펜실베이니아지부에 연락하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과정에 포함되는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병력, 정신과 검사, 신경심리화학적 검사, 혈액검사, 소변 검사, 가슴 X레이 촬영, 뇌파 검사, 뇌 촬영, 심전도 검사.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치매가 다른 치료 가능한 병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비용은 주로 메디케어나 몇 가지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나 진단센터에 문의함으로써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진단 센터 혹은 전문의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할 사항들

- 진단과정에 드는 전체 비용이 얼마인가?
- 테스트 외에 드는 다른 비용이 있는가?
-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진단이 가능한가?
- 60세 이하인 경우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가?
- 몇 번에 걸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가?
- 진단 후에도 전문의의 추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 전문의의 진단 후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관련 경험이 많은 일반의를 추천해 줄 수 있는가?

가족 내에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로 진단 받은 이가 있는 경우 주로 며느리 또는 딸이 간호 역할을 맡게 되는데, 결국 위의 가족수기 사례와 같이 매우 힘든 상황들로 인해 간호인까지 우울증,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알츠하이머협회는 환자 간호인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한인 치매가족 지원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 가족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여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상세한 간호 기법 상담 또한 제공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알츠하이머협회로 연락 주십시오.

ALZHEIMER'S ASSOCIATION (알츠하이머협회)  
919 North Michigan Avenue, Suite 1100  
Chicago, Illinois 60611-1676  
전화: (800) 272-3900 (한국어 무료 통역서비스 가능)  
팩스: (312) 335-1110  
웹사이트: <http://www.alz.org>